

키워드 : 예악사상, 아악 정리, 정간보, 종묘제례악, 장악원, 민간음악의 융성

〈한국의 음악 V〉

2.4.7. 조선(1392-1910)

조선은 유교의 이념으로 국가를 설립하였으며 음악을 국가 통치에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유교적 사상은 예(禮)와 더불어 악(樂)을 소중히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의 응용에 있어서 악은 아주 중요하였다. 그 중에서도 아악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예와 악을 중요시한 사상을 예악사상이라고 한다. 유교적 통치 이념을 가진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불교를 배척하였으나, 음악은 고려의 음악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고려 음악의 많은 것이 남녀간의 사랑을 읊은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음악은 그대로 두고 노래만을 점잖은 유교적 원리에 의한 것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고려 말의 불완전한 아악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많은 고려 향악의 노래말을 고쳤고 아악을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1397-1450)의 아악 정리 업적은 가장 뛰어나다.

세종은 박연(1378-1458)에게 명하여 아악을 정리하게 하였고, 이 정리된 아악은 궁중의 행사에 두루 사용되었다. 중국의 아악보다도 더 완전하고, 예전의 음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아악은 불행하게도 20세기 초에 들어와 궁중행사와 제사가 모두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은 오직 공자의 제사에 사용되는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 하나만이 연주되고 있다. 그리고 이 현재의 문묘제례악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귀중한 음악이다.

세종은 아악을 정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는 수많은 악기를 만들게 하였고, 악보와 음악 이론 서적들을 간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음악 서적을 탐독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현대의 학자들은 그를 음악학의 근거를 최초로 한국에 이룩해 놓은 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작곡에도 능하였고, 그가 작곡한 많은 작품들이 현재까지 악보로 전해오고 있고 또 연주되고 있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음악 중 ‘여민락’과 ‘보태평’, ‘정대업’은 대표적인 곡이다. 그리고 그는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 사용했던 불완전한 악보에 불만을 가지고 간편하고 사용하기 좋은 정간보(井間譜)를 창안하기도 하였다.

이 정간보는 앞서 말한 바처럼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악보로 동양 최초의 본격적인 악보이다. 정간보의 창안, 작품 활동, 아악의 정리, 음악학에 기초가 되는 음악이론 서적의 발행 외에도 그는 민요까지 채집하였고, 한국 음악의 음 조직에 기초가 되는 율관(律管)을 제작하여 이것에 따라 조율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뛰어난 음감(音感)을 가진 그는 다른 모든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음악적 치적(治績), 잘 다스린 업적)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존경 받고 있다.

세종의 아들인 세조(1417-1468)는 많은 정치적 약점을 지닌 왕이었으나, 문화적으로는 상당한 업적을 남긴 이다. 그 가운데 음악적 업적 또한 적지 않았다. 그는 세종의 정간보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개량하였고, ‘보태평’과 ‘정대업’의 음악을 편곡하였다. 이렇게 편곡된 이 두 음악은 곧 역대 조선의 임금을 위한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으로 사용되었고, 이 종묘제례악은 지금도 당시와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연주되고 있다.

조선의 제9대 임금인 성종(1457-1494) 또한 음악에 공헌한 바가 크다. 그는 음악의 백과사전적인 <악학궤범>을 발행하였고, 이 책은 후대의 음악에 절대로 필요한 지침서가 되었다. 조선의 음악 연구에 필수불가결한 이 책은 후대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재발행되었다. 16세기 이후는 정치적으로

로 조선이 많은 혼란을 겪게 되면서 궁중 음악도 점점 찬란했던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의 약 40년 사이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커다란 전쟁을 겪으면서 악기와 악서는 깨지고 불탔으며, 음악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음악의 모습은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다가 영조(1724-1776)와 정조(1752-1800) 때에 이르러 궁중음악은 어느 정도 부흥의 기운이 있었으나, 15세기 초의 세종에서 15세기 말의 성종에 이르는 그 화려했던 모습은 되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 말기의 모습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를 일본에 빼앗긴 이후의 궁중 음악은 아주 보잘 것 없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 음악은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보허자'와 '낙양춘'과 같은 중국계의 당악이 중국적인 모습을 벗어나고 한국 음악화되어 간 사실과, 거문고의 조율 체계(調律 體系,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고르는 체계)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사실 등은 이러한 움직임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와 같은 조선 음악 내부의 움직임은 인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음악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중국 음악이 한국 음악화되며, 거문고의 조율 체계가 변하는 이 시기의 한국 음악은 농현법(弄絃法)을 가지게 되면서 예전보다 멋과 맛을 한층 뽑내는 음악으로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조선의 국가적 음악 기관은 국가 설립 첫 해인 1392년에 이미 세워져 앞 시대의 전통이 계속될 수 있었다. 신라, 고려와는 달리 여럿의 음악 기관에서 담당했던 조선의 음악 행정은 1469년에 이르러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 의해 수행되게 되었다. 장악원(掌樂院)이라는 이름의 이 음악 기관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조선 말까지 존속하면서 모든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이후 장악원의 전통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의 혼란기를 거쳐 1951년에 국립 국악원으로 이어졌다.

한편, 조선 중기 이후는 새로운 음악적 기운이 움텄으니, 궁중 음악의 쇠퇴와는 달리 민간 음악의 발생과 융성이 있었다. 물론 민간 음악은 그 이전의 어느 시대에도 있었겠지만, 이 때에 이르러 기록상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먼저 양반 계층에 의한 가곡과 가사, 시조의 등장이다. 때로는 그 기원을 고려의 향악에 두기도 하는 이 음악들은 조선 중기 이후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여 왔다. 선비들은 한가로울 때를 골라 이들 음악을 즐겼으며, 이 음악들은 거문고의 악보로 담았다. 그러므로 조선 중기 이후는 이들이 즐겼던 음악의 흔적인 거문고 악보가 수없이 발간되게 된다. 이 가운데에도 가곡을 수록한 거문고 악보는 무수히 많으며 이들 악보는 한국 음악사에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국가 주도에 의해서 발행된 악보와는 성격이 다른 이 악보들은 체계의 통일성은 없으나, 당시의 음악 현상을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다음은 한국 성악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판소리의 등장이다. 대개 영조 때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판소리는 가곡류(歌曲類)의 음악과는 달리 평민이나 일반 대중이 즐기던 음악이었다. 뛰어난 성악적 기교를 필요로 하는 판소리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명창(名唱, 노래를 뛰어나게 잘 부르는 사람)을 거둬들이며 배출하면서 그 음악의 질과 양을 더해 갔다. 판소리의 명창은 다른 어떤 음악에서도 볼 수 없는 힘든 수련 과정을 겪어 가면서 그들의 예술성을 키워 갔다. 처음에는 일반 서민 대중들이 즐기던 음악으로 출발하였으나, 양반들의 비호(庇護, 편들어서 감싸주고 보호함)를 받기 시작하면서 판소리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고, 이와 비례하여 예술적 음악으로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판소리 애호가들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대원군(1820-1898)으로 그의 집권 시절에는 가히 판소리의 천국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소리도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이후 한때는 겨우 명맥만 이어가기도 하였다. 모두 12곡, 즉 12마당의 소리를 가졌던 판소리 음악 중 현재는 5마당만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판소리는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연극의 영향으로 창극을 파생하기에 이르렀다. 판소리와는 달리 여러 가수가 배역을 갖고, 무대 장치를 한 창극은 한때 대단한 인기를 누렸으나 지금은 국립창극단에 의해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판소리나 창극은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성악곡이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악보로 기록된 것은 최근에 채보된(採譜, 곡조를 듣고 그것을 악보로 만듦) 것 외에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그 노래말을 담은 책들만 여기저기서 나타날 뿐이다.

마지막으로 산조 음악이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판소리와 함께 무악(巫樂, 무속 음악)에서 출발한 산조(散調)는 즉흥적인 독주곡으로 약 100여년 전에 생겨났다. 가야금을 위한 산조로 출발한 이 음악은 후에 여러 명인들을 거치면서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등을 위한 산조로 확대되어 갔다. 독주자의 뛰어난 테크닉(technique)과 즉흥적 연주 능력을 요구하는 이 음악은 민속악의 한 종류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훌륭한 예술 음악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음악 역시 악보로 기록된 것은 최근에 채보된 몇몇이 전부이다.

판소리와 산조, 그리고 가곡류의 음악 외에도 조선 음악의 역사에는 많은 음악이 나타난다.

1939년은 한국 음악의 역사 중 최초로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 서양의 5선 악보에 의한 작곡이 이루어진 해이다. 서양식 관현악법(管絃樂法)에 의해 작곡된 최초의 작품 이후 지금까지 수백곡 이상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때로는 전통적 수법으로, 혹은 서양식 수법이나 전위적 수법으로 작곡된 이 작품들에는 전통적인 한국 음악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음악 세계를 지닌 것도 있다. 그러나 한국 악기를 위주로 작곡되기만 하면 다 한국 음악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악에는 서양식 악기 배치법과 양복을 입은 지휘자까지 등장한다. 그리고 서양 음악과 같이 중주곡(重奏曲, duet), 협주곡(協奏曲, concerto)으로 작곡되기도 하며, 서양 악기와 같이 연주되기도 한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작곡법을 가르치며 새로이 작곡된 이런 음악의 연주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략 이와 같은 역사를 지닌 한국 음악은 현대에 와서는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궁중 음악의 전통에 민속악까지 수용한 국립 국악원은 한국 음악의 보존과 보급에 가장 중요한 국가 기관이다. 각 대학에서의 한국 음악 연구와 보급 또한 활발하여 한국 음악의 장래는 매우 희망적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세기 이후 서양 음악을 중심으로 각 학교의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분위기도 서양 음악 위주이기 때문에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아직은 적다고 할 수 있다.

1. 조선의 개국이 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조선 전기의 음악적 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조선 후기의 음악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키워드 :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수제천, 보허자, 가곡, 판소리, 산조, 시조

〈한국의 음악 VI〉

3. 한국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

현재 남아 있는 한국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는 약 60여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악기들이 현재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만 사용되고 있다. 남아 있는 이 악기들은 아악, 향악, 당악에 따라 아악기, 향악기, 당악기로 분류되기도 하고,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Curt Sachs의 분류법에 의해 현명, 공명, 체명, 피명 악기로 분류된다.

한국 악기를 만드는 재료는 쇠붙이, 돌, 나무, 실, 바가지, 가죽, 대나무, 흙 등 8가지이다. 이를 한국 음악에서는 8음이라고 하고, 이 8음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이 8음에 의한 악기에는 동양 철학적인 깊은 상징이 담겨 있다.

그러면, 한국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의 모양과 그 소리를 시청각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자.

4. 감상 및 실습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음악에 대한 간단한 이론과, 특징,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았다. 음악의 이해를 위해 문헌적인 사실에 근거한 강의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실제의 음악을 접해 보지 않으면 그 이해는 별 가치가 없다.

4.1. 문묘제례악

문묘제례악은 앞서 말한 바처럼 공자의 제사를 위한 음악이다. 그러나 공자 외에도 공자의 훌륭한 제자들과 고대 중국의 뛰어난 유교 철학자들과 한국의 유교 철학자들을 동시에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낸다. 1년에 초봄과 초가을 두 번에 걸쳐 드리는 이 제사에는 음악과 더불어 춤이 따른다. 이 춤은 일무(佾舞)라 하고, 모두 64명이 8×8줄로 늘어서서 춤을 춘다. 엄밀히 말해서 중국 음악으로 중국식 아악의 진수를 보여 주는 담백한 음악이다. 이 음악은 한 phrase가 4음으로 구성되고 있고, 음악의 시작과 끝이 아주 특징적이다.

4.2. 종묘제례악

역대 조선 임금들을 모시고 제사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종대왕이 작곡했고 세조가 편곡한 음악이다. 예전에는 1년에 4번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매년 5월 첫 일요일에 한 번 종묘에서 지낸다. 중국식 아악의 영향을 받았으나 한국적 독특한 맛을 자아내는 신비한 분위기의 음악이다. 관현악과 더불어 악장이라고 하는 노래가 따르며 역시 64인의 일무가 있다.

4.3. 수제천

한국 아악곡 중 최고로 치는 음악이다. 원래는 가사를 가진 성악곡이었으나 현재는 기악으로만 연주한다. 가사는 백제 시대에 이루어졌으나 음악은 고려 시대의 것이다. 왕세자의 거동에 사용되었던 음악으로 불규칙적인 장단을 가지고 있다.

4.4. 보허자(步虛子)

고려 대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음악이나 지금은 완전히 한국 음악화되었다. 왕세자가 궁궐 밖으로 나갈 때 주로 사용되었고 무용의 반주 음악으로도 사용되었다.

4.5. 가곡

조선 중기 이후 양반들이 즐기던 음악으로 관현악 반주를 갖는 성악곡이다. 전주(前奏, prelude)와 간주(間奏, 한 악곡의 도중에 어떤 기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연주하는 부분) 혹은 후주(後奏, 반주에서 독주나 독창이 끝난 뒤에 연주하는 부분)를 갖는 곡으로 남녀가 따로 부르기도 하고 서로 교대로 부르기도 한다.

4.6. 판소리

가수 1인이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추어 서사적인 내용의 긴 이야기를 몸짓을 섞어가며 노래를 부른다. 노래인 소리와 spoken dialogue인 ‘아니리’, 그리고 몸짓인 ‘발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4.7. 산조

장구나 북 반주에 의한 즉흥적 기악 독주곡으로 한국 음악에서 가장 어려운 음악적 기교를 발휘하는 음악이다.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 등의 주요 장단과 여러 장단으로 구성되며 느린 한 배에서 빠른 한 배로 음악이 진행된다. 각 장단은 장단명이 되기도 하고, 해당 악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단과 장단 사이는 휴지(休止, pause) 없이 진행되고, 매 첫장단은 변주 없이 기본 장단을 짚어 준다.

4.8. 시조

가곡과 같은 노래말을 가졌으나 반주가 없는 Amateur적인 음악으로 가곡과는 음악 형식이 다르다. 가곡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3장으로 되어 있다.

1.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골라 그 감상을 이야기해 봅시다.